



■ **이희봉씨**
(대구지부 사무국장)… 지난 10월22일 제4회 저축의 날에 한국은행총재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그는 겸손하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말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싱글벙글한 표정.

■ **윤기옥(본부 기획부 주임)~**… 항상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본부 여직원들의 언니로서 따뜻함을 잊지 않던 그녀가 이제 평생을 함께 할 동반자와 한 집을 쓰게 되었다.

그녀는 지난 10월31일 경남예식장에서 수년간 사랑을 나누어 온 안상익씨와 결혼식을 가졌다.

갓추어진 화려함 보다는 함께 뛰어나고 채워가는 소박함으로 살고 싶다는 그녀의 말처럼 평생 식어지지 않고 넘쳐흐르는 사랑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하면서, 결혼 후에도 후배 직원들에 대한 따뜻함을 잊지말라 당부하고 싶다.

■ **이혜숙씨(인천지부 서무과)~**… 유난히 마르고 큰 키에 서글서글한 웃음으로 주위사람을 푸근하게 해주었던 그녀가 시집을 갔다. 그건 10월24일, 현재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장석

호씨와 화촉을 밝혔다다는 것.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수확하고 12월경 부군과 함께 외국길에 오르게 된 그녀의 앞길이 탄탄대로에 뿌려진 장미갯길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면서도, 한편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으니, 이제 누가 그녀 만큼의 인심 좋은 웃음을 선사해 주려나…

■ **배동호씨(서울지부 홍보직원)~**주위에서 누구는 시집가고 누구는 장가간다는 소식에, 가장 심란한 얼굴을 한 사람이 바로 이사람인 것 같다. 이유를 들어보니, 자신도 내년 쯤엔 장가를 가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텐데, 가장 중요한 애인이 아직 없으니 어쩌면 좋겠냐는 것이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 자신이 있으니 좋은 여자 하나 찾아달라”며 자못 심각한 얼굴. 관심있는 여자들의 연락을 바란다.

■ **박광우씨(본부 기획과장)~**요즈음 통 얼굴이 보이지 않아 궁금히 여겼더니 '88년도 예산 직업 때문에 골방(?)에 틀어박혀 버렸다는 소문.

아뭏든지 박과장 이하 기획부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모든 일이 무사히 끝나기를 바란다.